

본문말씀

창세기 13장~16장



제 13 장

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

-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
 -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
 -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벰엘에 이르며 벰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
 -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
 -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
 -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
 -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
 -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1)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
 -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
 -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
 -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
 -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
 - 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
-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옮기다

-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
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
서쪽을 바라보라
-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
-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
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
-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
네게 주리라
-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
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
쌓았더라

제 14 장

아브람이 롯을 구하다

- 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
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
-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
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
- 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
- 4 이들이 십이 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
배반한지라
- 5 제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
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, 함에서 수스 족속을, 1)사웨
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
- 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
이르렀으며
- 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
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
-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
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
쳤더니

- 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
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
-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
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
도망하매
-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
-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
노략하여 갔더라
-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
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
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
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
-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
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
-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원편
호바까지 쫓아가
-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
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
-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하다
-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
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
영접하였고
-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
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
-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
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
-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
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
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
-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
가지라

-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
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
-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
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
아니하리라
-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
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

제 15 장

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

-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
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
지극히 큰 상급이니라
-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
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
엘리에셀이니이다
-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
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
-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
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
-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
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
-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
여기시고
-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
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
-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
무엇으로 알리이까
-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
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
가져올지니라

-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
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
-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
-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
그에게 임하였더니
-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
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
자손을 괴롭히리니
-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
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
-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
-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
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
-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
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
-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
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
자손에게 주노니
-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
- 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
-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
땅이니라 하셨더라

제 16 장

하갈과 이스마엘

-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
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
-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
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
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
들으니라

-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1)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
-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
-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
-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
-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
-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
-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
-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
-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2)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
-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
-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
- 14 이러므로 그 샘을 3)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
-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

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

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